

Research Paper

농촌 재생을 위한 농업유산 지정 효과 측정 연구

도지윤 · 정명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A Study on the Effect of Designa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for Rural Regeneration

Jee Yoon Do · Myeong Cheol Jeong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RDA

요약: 본 연구는 농업·농촌유산을 활용한 농촌 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유산과 관련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효과 검토와 해외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지역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업유산 지정을 통해 유산의 가치 및 보전에 관한 인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보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 인식은 농업유산 지정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인식이 다소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생 방안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효과측정 모델을 적용한 결과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전·관리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와 주민협의체 등의 사업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생 방안 마련 시 목표 지향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해외 사례를 통한 농촌 재생 방안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문화·자연 자원과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업유산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현재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관점으로 농업·농촌유산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인식뿐만 아니라 전문가 설문 등 지역의 지정 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농촌재생, 농촌정책, AHP분석, 파급효과, 루리티지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derive the follow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effects of local communities and overseas cases through agricultural heritage and related systems to prepare rural regeneration measures using agricultural and rural heritage. First, The study was examined to improve the awarenes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value and preservation of heritage through the designa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However,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prepare for social problems such as the aging population in the future. Second, most of the residents' perceptions showe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designa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but they were somewhat less recognized in terms of economics, so it was found that regeneration measures were needed to compensate for this. Thir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effect measurement model,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effect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high, and the effect varies depending on project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councils.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rural regeneration measures through overseas cases, it was found that rather than large-scale development, various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and activation measures were prepared by expanding the scope to surrounding areas. This study was conducted only on agricultural heritage areas, but it is meaningful that agricultural and rural heritage should b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suitable for the current trend,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s not only local residents' perception but also regional effects and revitalization measures.

Keywords : Rural Regeneration, Rural Policy, Analysis of AHP, Ripple Effect, Ruritage Model

I. 서론

정책이란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 그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Rho 1991; Chung 2020). 즉, 결정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정책은 사회현상의 일부로 어떤 원인이 특정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는 복잡한 정책 문제를 추경하고 시행 목적의 정합성 검토뿐만 아니라(The Seoul Institute 2019), 더 나은 제도로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함으로 꼭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은 식생활을 뒷받침하는 생산물의 생산을 담당함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며, 2000년대에 어려워진 농업 여건의 대안으로 농촌관광산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Gang 2013; Park et al. 2019).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유지·보전에 관한 제도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제정되었다(Shin & Lee 2019; Sha 2019).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여건 개선, 경관 보전,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등에 맞춰져 있던 범위가 전통지식 보전을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2015년 개정), 공간정비를 위한 농촌공간정보 등 데이터 구축(2019년 개정)이 신설됨에 따라 농촌주민의 삶과 더불어 공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농촌 유지·보전을 위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 중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농촌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무형유산으로써의 농촌의 다양한 유산자원 중 전통농업기술 전승과 농업시스템의 보전으로 파생되는 농촌환경의 쾌적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지역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2012년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까지 18개의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신청 지자체가 2012년 청산도, 제주도 2개의 지역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2018년 8지역, 2019년 6지역, 2020년 6지역, 2021년 4지역, 2022년 6지역 등 꾸준한 것으로 보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유산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Lim 2021; Park & Lim 2020; Kim & Jung 2019)와 자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Beak 2017; Dong & Oh 2019; Cha & Oh 2022), 지역의 경관 특성 분석(Lim & Son 2021; Kim & Choi 2014) 등 지역특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정책 현황(Beak 2017; Kwon & Jeong 2018; Jeong et al. 2014)으로 한정되고 있었다. 유산관련 정책 시행 후 지역을 탐색하는 연구(Kim & Jung 2020; Do &

Jeong 2022)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지역 변화의 단편적인 연구만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시행 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가 미미하며 농촌지역에 산재된 다양한 유산자원까지 포함되지 않고 국가중요농업유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 시행 후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지속가능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미친 영향 파악과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리·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이외 다양한 유산기반 재생 모델 및 지침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생방안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변화실태 항목을 선정하고,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 및 적용하여 정책 시행 목적의 정합성 여부와 지정 후 농촌지역에 나타난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효과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지역 특성 도출과 해외의 농촌과 문화·세계자연유산의 연계를 통해 재생을 도모하고 있는 새로운 재생방안 적용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농촌 재생방안 마련에 관한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및 과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유산자원 기반 농촌재생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되어있는 농업유산 지역을 대상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2013년에 도입되어 2023년 현재 서천 한산모시농업을 포함하여 1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현황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시행 후 효과 측정을 위하여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지역의 변화 양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정 후 5년 이상 경과 된 9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는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현, 농업유산보전관리사업)이 농업유산 지정과 함께 3년간 진행되므로 이 사업이 완료된 후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지역을 대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시행 후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대상은 지정 후 데이터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과정

연구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유산 기반 재생방안

Table 1. Status of Korea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2023)

	Designated year	Designation		Designated year	Designation
No. 1	2013	Gudeuljangnon in Cheongsan-do, Wando	No. 10	2018	Uiseong traditional repair agriculture
No. 2	2013	Jeju-do batdam	No. 11	2018	Uiseong traditional repair agriculture
No. 3	2014	Gurye sansuyu (<i>Cornus officinalis</i> S. et Z.) farming	No. 12	2018	Cheongtaejeon agriculture of fermented tea in Jangheung
No. 4	2014	Damyang bamboo field agriculture	No. 13	2019	Wanju ginger traditional agriculture
No. 5	2015	Geumsan traditional ginseng agriculture	No. 14	2019	Dumbung irrigation in Goseong coastal area
No. 6	2015	Hadong traditional tea agriculture	No. 15	2019	Sangju traditional dried persimmon agriculture
No. 7	2016	Uljin geumgang pine mountain agriculture	No. 16	2021	Gangiin federal porridge ecological circulation waterway agriculture
No. 8	2017	Buan Yuyu-dong sericulture	No. 17	2022	Changwon Dokmoe persimmon agriculture
No. 9	2017	Ulleung volcanic island field agriculture	No. 18	2022	Seocheon Hansan mosi traditional agri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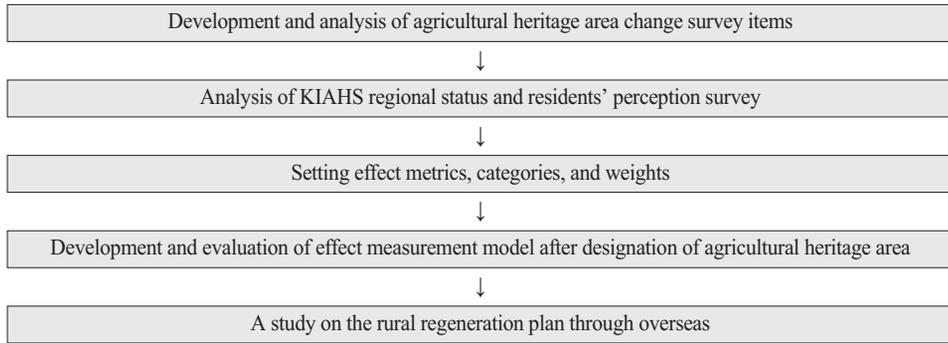


Figure 1. Study process

마련을 위한 농업유산 지역 현황 분석을 위하여 제도 시행 후 변화실태 등을 통해 어떠한 제도적 영향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설정하였다. 농업유산지역은 다른 농촌지역과 다르게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 곳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항목을 재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현황과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현황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량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효과 지표 및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중치 설정을 위해 AHP분석을 실시하여 효과 측정 지표를 개발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농업유산 지역의 제도 효과 측정 지

표는 각 지역 현황을 토대로 유산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도 효과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재생방안 개발 및 적용 시 각 유형별 항목 개발 등의 방향 설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농업유산지역 변화실태 조사항목 선정 및 현황

1) 변화실태 조사 항목 선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의 변화실태 파악을 위하여 기존의 농촌지역의 변화실태뿐만 아니라 농업유산 관련 변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재선정하였다. 1차 조사항목 선정은 농촌지역의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연구인 농촌진흥청의 농촌지표(2017), UN대학의 사회생태적농업

Table 2. Selection of survey element on changes in agricultural heritage areas

Category	Type	Classification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Social	Population and households	Population and number of households	Population, household, population growth rate
		Population distribution by age	Population distribution by age and number of elderly people
	Rural commun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Number of social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degree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major activities of residents' consultative bodies, research associations, etc
		Discovering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and fostering educational program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radi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and education and commentary services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technology	Traditional knowledge transfer system and DB constru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data such as technical documents, videos, records of conservation activities, media materials, etc., and status of preservation of tradi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Women's knowledge and social equality	Social equity, participation, etc. of agricultural knowledge/technology transmission

Table 2. Continued

Category	Type	Classification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Ecological	Biological species and landscape diversity	landscape change and biodiversity monitoring	Construction and monitoring of arable land and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Protecting ecosystems and biodiversity	Plant and plant diversity, conservation of native species
Economic	Production and income	Number and yield of related crops	Cultivation area, crop production, farm income
	Regional development and utilization	Development of tourism infrastructure and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tourist,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facilities, etc
		Discovery and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Program development and utilization
		Related product development	Brand development and incomeization plan established
	Establishment of system and management system	expansion of institutional mechanisms	Local government ordinance and system status
Establishment of long-term management pla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related to agricultural heritage		Establishment status of facility maintenance plan and management plan	

경관(SEPLS) 회복력지표(2014),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유산 모니터링 공통지표(2021) 등을 참고하여 농업유산 지역의 사회·생태·경제적 변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조사항목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들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유형분류를 실시하였다. 이는 인구 및 가구, 농촌 공동체와 사회적참여, 전통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 생물 및 경관 다양성, 생산 및 소득, 지역 개발 및 활용, 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사항목에 대한 객관성을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여 변화실태 조사항목을 검토하였으며, 농업유산 지정 기준인 5개 지표를 기준으로 최초 지정 당시의 가치 향상과 관리 등의 보전에 관한 방향 설정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적 3유형 6항목, 생태적 1유형 2항목, 경제적 3유형 6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즉, 농업유산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별 범위가 상이함으로 핵심구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조사하여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유형 14항목으로 선정하였다(Table 2).

2) 주민 인식조사 및 분석방법

변화실태 조사 항목인 7유형 14항목 중 정량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 및 변화인식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 항목은 농업유산에 대한 가치인식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인식, 전승체계 중요성, 사회적 형평성 증감, 농가소득, 관광객, 관광기반시설 및 홍보 등의 증감 인식 등 총 8개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9개의 지역별 약 120개씩 총 1,075개의 표본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21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ANOVA 분석, 동질성 검정,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지역별 주민인식 특성과 지역간 인식 차이를 파악하였다.

3. 효과 측정 모델 개발 및 평가

1) 효과측정 지표 항목 및 위계 설정

지역별 조사를 위해 개발된 변화실태 데이터를 토대로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 항목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변화 실태 조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된 인구 증감을 등과 정량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동식물 다양성 등 항목을 제외하였다. 또한, 각 농업유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유산과 관련된 효과인 유지·보전과 일반적인 사회·생태·경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활용 효과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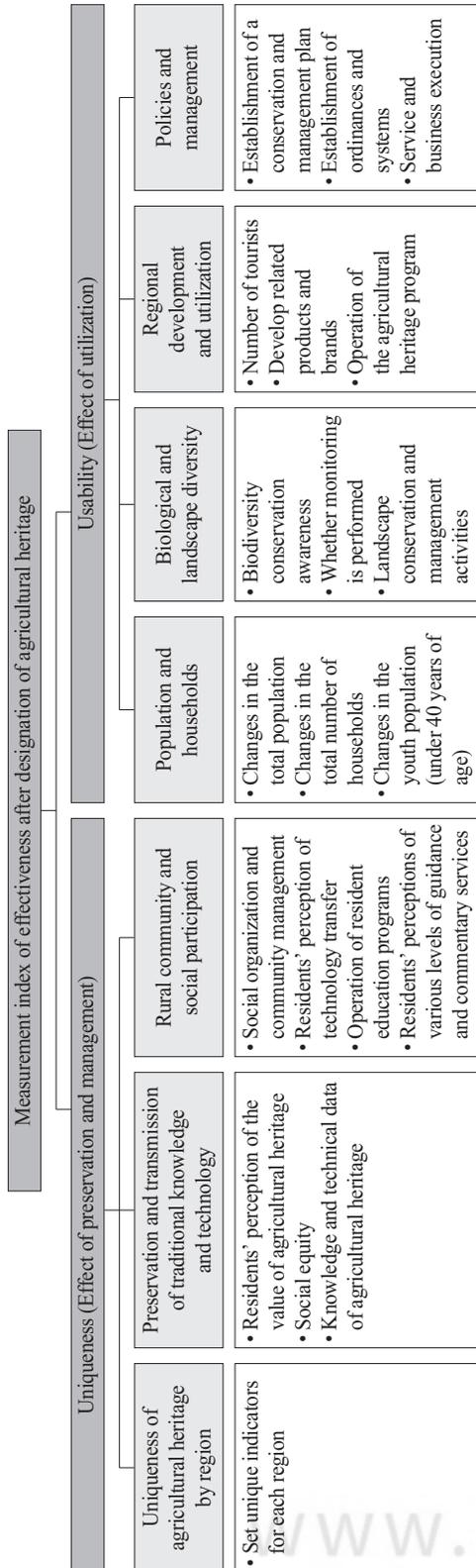


Figure 2. Measurement index of effectiveness after designa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2개의 대분류와 변화실태를 통해 도출된 7개의 중분류, 20개의 소분류로 설정하였으며 Figure 2와 같다. 이후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실태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별로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범위에 따라 농업유산 지역에 편차가 있으므로 공통적인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평가 점수체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선행연구 대부분 지속가능한 방향, 지역의 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가 개발되고 있었으며, 본 연구의 지표는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중 주민 인식과 관련된 항목은 설문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2회의 전문가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세부항목 변경 및 범주를 검토한 후 농업유산 지정 효과에 관한 평가 지표와 범주를 설정하였다.

2) 지표 가중치 설정

개발된 효과 측정 지표는 계층화의사결정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AHP기법은 의사결정 문제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표현하고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다 기준 의사결정모델로 정의하였다(Saaty, Thomas L, 1980, 2003). 이 방법은 다수의 속성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중요도를 쌍대비교 함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9점 척도를 사용하여 상위 항목에 기여하는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Lee 2011; Yoon 2013; Kim et al. 2014). 이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유산 및 농촌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27명을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지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값은 AHP분석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뢰 여부 판단이 가능한 일관성지수를 0.1로 설정하여 0.1 이상인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가중치를 살펴보면 고유성은 0.680, 활용성 0.320으로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효과

Table 3.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agricultural heritage areas

		Type	Relative weight	Weight
Uniqueness .680	A) Uniqueness of agricultural heritage by Region .282	① Set unique indicators for each region	1.000	.192
		② Oper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related to agricultural heritage	.321	.047
	B) Rural commun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216	③ Residents' perception of technology transfer	.339	.050
		④ Operation level of residents' education programs	.168	.025
		⑤ Residents' perceptions of various levels of guidance and commentary services	.172	.025
	C)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technology .502	⑥ Residents' perception of the value of agricultural heritage	.572	.195
		⑦ Knowledge and technical data of agricultural heritage	.123	.042
		⑧ Residents' perception of social equity among residents	.305	.104
	Usability .320	D) Population and households .108	⑨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areas	.313
⑩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in the agricultural heritage area			.239	.008
⑪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under 40 years old)			.448	.016
E) Biological and landscape diversity .485		⑫ Biodiversity conservation awareness	.329	.051
		⑬ Monitoring for the promotion of agricultural landscape and biodiversity	.235	.036
		⑭ Whether there are activities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landscape	.436	.068
F) Regional development and utilization .201		⑮ Change in the number of tourists	.252	.016
		⑯ Degree of efforts to develop products and brands related to agricultural heritage	.339	.022
		⑰ Operation of the agri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rogram	.409	.027
G) Policies and management .206		⑱ Implementation of services and projects related to agricultural heritage	.444	.029
	⑲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368	.024	
	⑳ Establishment of ordinances and systems	.188	.012	
Total				1.000

와 관련된 지표가 2배 이상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며, 고유 효과 내 전통지식·기술 보전과 전승 0.502, 농업유산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지표 0.282, 농촌공동체와 사회적 참여 0.216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효과의 경우 생물 및 경관 다양성 0.485, 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0.206, 지역 개발 및 활용 0.201, 인구 및 가구 0.10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3) 제도 시행 후 효과측정 모델 개발

농업유산 지역의 제도 시행 후 효과측정 모델의 경우 Figure 3과 같이 변화실태 조사항목 및 인식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효과를 파악하는 과정을 적용하여 측정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즉, 위와 같은 모델의 산출식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가중치의 곱을 통해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모델 산출식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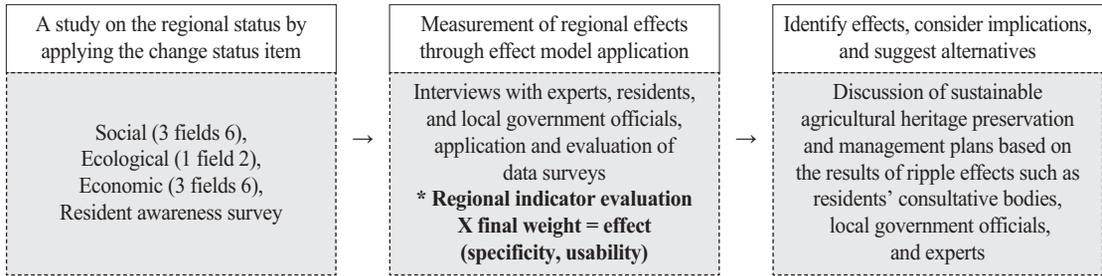


Figure 3. The process of measuring community effects through model application

III. 결과 및 고찰

1. 농업유산지역 변화실태 분석 결과

1)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역의 변화실태 종합

변화실태 항목을 종합하여 대표적인 변화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지역의 경우 주민협의회의 주도적 보전·관리 활동 등을 통해 목답을 4.5ha 이상 복원하거나 정비했으며, 전통농업의 가치 보전의 중요성과 관광객 증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거래 판매장 및 로컬푸드 판매점 등을 운영했음에도 소득 증가에 대한 인식과 홍보물에 대한 것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B지역의 경우 지자체 조례 제정과 관광 콘텐츠 및 기반시설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광객 유입이 증가되었으며, 이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전승가치, 사회적 형평성, 기술 전승 등에 관한 항목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C지역의 경우 전체 지역에 비하여 농업유산 핵심구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회, 보존협의회 등 주민조직이 다양하게 결성되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주민 인식 항목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재배기술 및 품종 등에 대한 지원과 유명세를 얻은 축제 덕분에 파악되었다. D지역의 경우 주민 인식 부족과 더불어 협의체 미결성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일자리 및 산업단지 등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지역의 경우 전통농업재현단지 등 농업유산 관리와 복원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승 가치 및 보전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된 항목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F지역의 경우 전통농업 방식을 고수하고 이를 전승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가치 보전의 가능성과 농업유산 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지역의 경우 복원사업 및 해설사 양성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도시락 판매 등의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지 훼손으로 인하여 소득증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H지역은 정책 시행 이후 주민협의체 설립 및 전통지식 교육과 아카데미를 운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유기농법을 고수하여 생물다양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I지역의 경우 핵심구역에 조형물 설치, DB구축,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전승가치 보전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농가소득, 관광기반시설 등 소득과 관련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정 후 5년 경과 지역 총 9개를 살펴본 결과 지정 이후 대부분 3년간 지원되는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을 통해 기본계획 및 환경정비와 주민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농업유산 지정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유산의 가치 및 보전에 관한 인식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활동 및 지원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관리 및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농업유산 제도는 보전·관리가 중심인 제도이므로 경제적

인 부분에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 지역별 주민인식

농업유산 지역에서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 547명(50.9%), 여성 528명(49.1%)으로 분석되었다. 나이는 60대 22.9%, 50대 18.5%, 70대 18.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가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농업 종사자가 47.6%로 나타났으며, 농사 경력으로는 50년 이상~60년 미만 12.4%, 60년 이상~70년 미만이 9.5%로 분석되었다.

조사 항목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승가치 보전의 중요성은 B, C지역이 4.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보존협회의 주도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의 유무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기술의 전승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C지역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지역은 3.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위의 전승가치 보전과 동일하게 공동체 및 주민 역량 교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된 인식의 경우 B지역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지역 2.84, D지역 2.83 순으로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 및 청년층 유입이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농업 참여도가 높을수록 이와 같은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물종 다양성의 경우 H지역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B지역이 2.86으로 가장 낮게

Table 4. Analysis of the perception relationship of changes between regions

	A (n=119)	B (n=115)	C (n=123)	D (n=121)	E (n=122)	F (n=126)	G (n=117)	H (n=119)	I (n=113)	F (p)
Importance of preserving traditional value	4.34	4.40	4.40	3.81	4.02	4.17	3.91	4.29	4.04	6.563 (0.000)*
	0.959	0.856	0.765	1.083	1.087	0.849	1.114	0.785	0.823	
	A·B·C > H·I > D·G									
Technology transfer status	3.90	3.66	3.94	3.03	3.51	3.60	3.63	3.80	3.44	10.649 (0.000)*
	1.053	1.042	0.899	0.966	0.874	0.738	0.979	0.859	0.886	
	A·C > B·E·F·G·H·I > D									
Social equity	3.60	3.77	3.72	2.83	2.84	3.52	3.53	3.69	3.33	16.330 (0.000)*
	1.122	1.020	0.892	0.997	1.029	0.874	0.925	0.989	0.871	
	B·C > A·F·G·H·I > D·E									
Biodiversity	3.50	2.86	3.41	3.12	3.44	3.26	3.46	3.54	3.08	7.120 (0.000)*
	1.024	0.926	0.896	0.868	0.900	0.771	1.022	1.072	0.965	
	H·A·C·E·F·G > B·I·D									
Increase in farm income	3.22	3.07	3.64	2.52	2.87	2.98	3.03	3.60	3.49	16.653 (0.000)*
	0.993	0.896	0.811	1.026	1.135	0.890	1.038	1.060	1.036	
	C·H·I > A·B > E·F·G > D									
increase in tourists	4.08	3.60	4.22	4.06	3.21	3.71	3.21	3.57	3.61	16.768 (0.000)*
	0.859	0.962	0.741	0.951	1.159	0.937	1.032	0.988	1.073	
	C·A·D > F > B·H·I·E·G									
Increase in tourism infrastructure	3.61	3.44	4.01	4.00	3.40	3.61	3.35	3.75	3.51	7.815 (0.000)*
	0.958	1.028	0.835	0.719	1.073	0.839	1.101	0.950	1.036	
	C·D > A·B·E·F·G·I									
Increase in promotional materials	3.47	3.13	3.82	3.50	3.41	3.48	3.12	3.74	3.38	7.147 (0.000)*
	0.990	0.978	0.758	0.932	0.960	0.797	1.100	1.037	1.046	
	C·H > E·F·I > B·G									

나타났다. 여기에는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입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지정 지역의 범위가 넓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증대에 관한 주민 인식 결과 C지역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지역이 2.5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한 행사 및 지자체 지원이 이와 같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유산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제도 시행 후 관광객 증가 여부에 대한 인식은 C지역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지역, G지역이 3.2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관광기반시설 증가에 대한 인식 역시 C지역이 4.01로 가장 높았으며, G지역이 3.35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가 지역 내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관광 및 활용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업유산 또는 지역의 홍보물 증가에 관한 인식은 C지역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B지역의 경우 3.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농업유산 핵심구역과 이를 홍보하는 공간인 전시 및 박물관이 밀집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농업유산 관련 제도 시행 후 주민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각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별 관계를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소득증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가치전승 및 전통농업 보전에 관한 인식과 관광객 증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보다 인식이 긍정적인 지역은 A, C, H지역으로 핵심구역 설정과 농업의 분포가 산발적이지 않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이 낮게 나타난 C, E, G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지자체, 브랜드, 자연재해 등의 갈등이 표출되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9개 농업유산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대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B지역의 경우 젊은 인구 유입 및 관광객 증가로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생물종 다양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다른 지역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었다(Table 4).

2. 농업유산 지정 후 효과측정 모델 적용 및 재생 방안 고찰

1) 지역별 측정모델 적용 결과

각 지역의 변화실태와 주민인식 결과를 효과측정 모델에 적용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농업유산 지정 후 9개 지역의 보전·관리 효과는 3.411점 중 2.578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활용 효과는 1.60점 중 1.038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각 지역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A지역의 경우 고유성 3.179점, 활용성 1.167점, 총점 4.346으로 농업유산 지정 후 매우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고유 효과에서 A지역은 전통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이 가장 높은 효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유산 가치에 관한 주민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활용 효과에서는 생태 및 경관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이 중 경관 보전 및 관리 활동 효과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B지역의 경우 고유성 2.730점, 활용성 1.168점, 총점 3.898점으로 나타났으며, 고유 효과에서 B지역은 전통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이 가장 높은 효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유산 가치에 관한 주민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활용 효과의 경우 생태 및 경관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생태 및 경관 요인 중에서도 경관 보전 및 관리 활동 효과가 가장 높은 효과로 도출되었다. C지역의 경우 고유성 2.622점, 활용성 1.087점, 총점 3.709점으로 농업유산 지정 후 지역에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유 효과에서 전통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이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농업유산 가치에 관한 주민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를 뒤이어 농업유산 지역의 고유한 자원 보전 및 생산량이 향상되었다. 활용 효과에서는 생태 및 경관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그 중 경관 보전 및 관리 활동 효과가 가장 높은 효과로 도출되었다. D지역의 경우 고유성 1.816점, 활용성 0.658점, 총점 2.474점으로 농업유산 지정 후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가 도출되었다. 고유 효과에서 전통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이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농업유산 가치에 관한 주민 인식이 향상이 가장 높은 효과를

Table 5. Results of regional effect using the measurement model

Classification	Category	Index	Result of effect												
			A	B		C		D	E		F	G		H	I
(A)	A	①	0.960	0.768	0.768	0.384	0.384	0.768	0.960	0.960	0.192	0.192	0.768	0.960	0.960
		②	0.235	0.141	0.141	0.047	0.188	0.188	0.188	0.188	0.188	0.188	0.188	0.141	0.141
	B	③	0.200	0.183	0.197	0.152	0.175	0.549	0.180	0.530	0.523	0.190	0.521	0.172	0.498
		④	0.125	0.100	0.050	0.025	0.100	0.100	0.075	0.075	0.075	0.050	0.050	0.100	0.100
		⑤	0.100	0.078	0.096	0.087	0.085	0.085	0.087	0.087	0.078	0.093	0.093	0.085	0.085
		⑥	0.975	0.858	0.858	0.743	0.785	0.785	0.814	0.814	0.762	0.837	0.837	0.787	0.787
	C	⑦	0.168	0.210	0.126	0.084	0.084	1.121	1.165	1.390	1.339	0.126	1.347	0.210	1.343
		⑧	0.416	0.392	0.386	0.294	0.296	0.296	0.366	0.366	0.367	0.384	0.384	0.346	0.346
(A) Total			3.179	2.730		1.816		2.481		2.053		2.636		2.801	
(B)	D	⑨	0.033	0.055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⑩	0.016	0.040	0.040	0.040	0.024	0.121	0.040	0.137	0.040	0.137	0.024	0.016	0.113
	E	⑪	0.048	0.080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⑫	0.153	0.146	0.174	0.159	0.176	0.176	0.166	0.166	0.177	0.180	0.180	0.157	0.157
		⑬	0.144	0.108	0.108	0.072	0.072	0.452	0.108	0.478	0.108	0.489	0.072	0.108	0.537
		⑭	0.340	0.272	0.204	0.136	0.204	0.204	0.204	0.204	0.204	0.204	0.136	0.272	0.272
	F	⑮	0.064	0.064	0.080	0.016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48	0.064	0.064
		⑯	0.066	0.088	0.066	0.022	0.044	0.243	0.088	0.287	0.088	0.287	0.044	0.044	0.243
G	⑰	0.108	0.108	0.135	0.027	0.135	0.135	0.135	0.135	0.135	0.135	0.135	0.135	0.135	
	⑱	0.087	0.087	0.087	0.029	0.116	0.116	0.145	0.145	0.087	0.087	0.058	0.116	0.116	
	⑲	0.072	0.072	0.048	0.024	0.096	0.248	0.072	0.265	0.096	0.207	0.024	0.048	0.188	
	⑳	0.036	0.048	0.048	0.036	0.036	0.036	0.048	0.048	0.024	0.024	0.012	0.024	0.024	
(B) Total			1.167	1.168		0.658		1.064		1.120		0.830		1.081	
Total			4.346	3.898		2.474		3.545		3.173		3.467		3.882	

보여주었다. 또한 활용 효과에서는 생태 및 경관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타 지역과 다르게 생물다양성 보존 정도에 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지역의 경우 고유성 2.481점, 활용성 1.064점, 총점 3.545점으로 농업유산 지정 후 높은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유 효과에서 E지역은 전통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과 지역의 고유성 모두 유사하게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농업유산 가치에 관한 주민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활용 효과에서는 생태 및 경관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F지역의 경우 고유성 2.880점, 활용성 1.167점, 총점 4.047점으로 농업유산 지정 후 매우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고유 효과에서 농업유산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생산량 향상에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전통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의 농업유산 가치에 관한 주민 인식 순으로 크게 효과가 나타났다. 활용 효과에서는 생태 및 경관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중 경관 보전 및 관리 활동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G지역의 경우 고유성 2.053점, 활용성 1.120점, 총점 3.173점으로 농업유산 지정 후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고유 효과에서 전통 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이 가장 높은 효과로 도출되었으며, 농업유산 가치에 관한 주민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활용 효과에서는 생태 및 경관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H지역의 경우 고유성 2.636점, 활용성 0.830점, 총점 3.467점으로 농업유산 지정 후 높은 효과를 보였다. 고유 효과에서 전통 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이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농업유산 가치에 관한 주민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다. 활용 효과에서는 생태 및 경관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타 지역과 다르게 생물다양성 보존 정도에 관한 인식이 향상에 높은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관 보전 및 관리 활동 요인과 농업유산 프로그램 운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지역의 경우 고유성 2.801점, 활용성 1.081점, 총점 3.882점으로 농업유산 지정 후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고유 효과에서 농업유산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생산량 향상에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전통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의 농업유산 가치에 관한 주민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활용 효과에서는 생태 및 경관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중 경관 보전 및 관리 활동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농업유산 지역은 지정 후 고유성의 유지 및 향상에 효과가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중 대부분 전통지식·기술의 보전과 전승에 대한 인식 및 가치가 가장 높은 효과로 나타났다. 고유성 중 효과가 낮은 항목은 다양한 안내 및 해설 서비스에 관한 주민 인식과 주민 교육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낮은 효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용성의 경우 농업유산 지정 목적에 따라 다소 낮은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대한 효과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활용효과 중 가장 낮은 영향력을 보인 요인은 총 가구수 증가, 청년 인구 증가, 농업유산 관련 용역 및 사업 실행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농업유산관련 제도의 경우 시행 목적 및 각 지자체의 주요 사업에 따라 다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농업·농촌유산 기반 지역 재생 방안 고찰

농업·농촌과 관련된 유산은 유형의 역사문화자원과 무형의 전통기술 및 농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보전할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와 같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핀란드에서는 농촌지역의 미래 시나리오 도출을 통한 지역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방소멸에 대응한 젊은층 중심의 생활양식 확대(Ah et al. 2021) 등 활력 있는 지역으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유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재생을 도모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위에서 나타난 정책 시행 후 지역의 효과 및 실태 등을 통해 국내에 적용가능한 농촌재생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표적인 농촌재생모델 중 하나인 RURITAGE (이하 루리티지)는 EU에서 2018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Heritage for Rural Regeneration'를 뜻하는 용어로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농촌 공간과 자연, 문화, 유·무형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자원을 통합하고, 다양한 농촌의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하는 새로운 농촌재생 접근방식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혁신영역(Systemic Innovation Areas, SIAs)은 순례(Pilgrimage), 로컬푸드(Sustainable local food production), 이주(Migration), 예술과 축제(Arts & Festivals), 회복력(Resilience), 통합적 경관 관리(Integrated landscape management) 등 6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6개의 영역 중 대표 영역을 설정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또한, 6개 영역 설정을 위하여 총 5유형 14개 세부 항목의 다양한 사회·경제·생태적 압력과 충격에 대응하는 분석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설정된 6개 혁신영역의 롤모델 지역(13개)을 선정하여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영역별 세부 유형, 농어촌 재생 모델의 역할, 과장상의 기여도, 참여 시점 등을 제시하여 다른 환경에서의 행동재현 용의성을 상-중-하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위하여 7영역 40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책으로 나타난 지역의 고유성 및 활용성 효과를 토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규제, 법제, 공동체 측면과 관련된 항목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과 문화생태계서비스, 관광, 문화자연유산 등의 포함, 교통성 등 활성화에 대한 항목들은 활용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의 경우 세계농업유산 및 일본농업유산, 세계 관개시설유산을 활용한 관광전략만들기 지침서(世界農業遺産・日本農業遺産・世界かんがい施設遺産, 観光戦略づくりの手引き, 2021)를 제공하여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방문유형을 구분하여 그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및 가치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SDGs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해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활성화 방침으로는 주변의 자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지역의 로컬푸드를 통한 헤리티지 투어리즘 등의 코스를 책정하도록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즉, 유산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성화 방안이라 제안하고 있다.

국내 농업유산 관련 정책 시행 후 가장 많은 효과를 보인 항목은 보전가치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분석됨에 따라 현 정책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지역 재생을 위한 마케팅 모델로 '환경분석-전략방향설정-제도설정'으로 제시됨에 따라 현 농촌지역의 유산 관련 재생 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IV. 결론

농업유산과 관련된 제도를 통해 발생된 지역사회 효과 검토를 통하여 현황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 특성 도출 등을 통해 해외 재생 방안 등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재생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재생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 농촌 현황과 정책 시행 후 효과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유산 관련 제도를 통하여 유산의 가치 및 보전에 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원사업 및 예산이 종료된 이후의 지속가능성은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지속가능성의 여부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관리자 및 농업 활동가의 부재가 앞으로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현재의 농업유산 제도는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미약하므로 유산의 가치 및 보전뿐만 아니라 소득 부문에서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 인식을 통하여 농업유산 지정 지역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적 인식을

보인 지역은 지자체 사업 및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민협의체의 주도적 활동과 지역 축제 등으로 이어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으며, 인식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또는 외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범위와 대규모 관광개발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촌·농업유산을 통한 지역재생 방안 구상 시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지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지역별 효과측정 모델을 적용한 결과 활용효과보다 보전·관리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전·관리효과 중 전통지식·기술보전과 전승에 매우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주민 인식 향상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유효과 중 안내 및 해설서비스와 주민 교육프로그램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상된 주민인식을 토대로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 및 활동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활용효과의 경우 제도의 목적으로 인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는 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사업에 따라 지역에서 나타나는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재생 방안 마련 시 목표지향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해외사례를 통하여 농업·농촌유산을 기반으로 한 재생 방안을 검토한 결과 보전·관리보다는 지역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존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주변 문화·자연자원과 결합된 형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재생 방안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이 함께 협력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의거하여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 자원 보전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농촌의 역할과 범위가 생산이 주를 이루던 공간적 역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산을 활용한 정책과 사

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단편적인 농업유산만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다양한 관점과 농업·농촌에 산재된 유산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유산 지역의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 측정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업유산 지역의 주민 인식 및 전문가 설문 등을 진행하여 농업유산 지역과 정책에 대해 거시적·미시적 검토를 수행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농업유산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유산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해외 사례 등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농촌공간이 보유하고 있는 재생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유산 지역 중 9개의 지역만 대상으로 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위와 같은 모델을 전체적인 지역에 적용하여 검토한다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사

본 연구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PJ01711203)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References

- An PG, Eom SJ, Kim YG, Kim SB. 2021.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RURITAGE Concept for the Utilization of Rural Resources –Agricultural Heritage Districts and Historical Village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32(4): 731-749.
- Beak SS. 2017. A Proposal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on Korea's Important

- Agricultural Heritag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5(2): 98-107.
- Cha DW, Oh CH. 2022. Terrestrial Insect Fauna of Persimmon Plantation in Sangju Dried Persimmon Agricultural Area,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36(1): 56-71.
- Choi DS, Oh CH. 2019. Change of Flora and Land Use Types in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System Gudeuljang Irrigated Rice Terraces, Cheongsando, Korea.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Conference Paper* (1): 77-78.
- Choi JA, You JW, Kim EJ, Kim SB, Lim CS. 2014. The Analysis of Indicators for Walking Trail Management in Agricultural Areas by AHP.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Tourism* 21(2): 7-23.
- Chung CK. 2020. *Public Policy Making*. Seoul: Deamyung.
- Do JY, Jeong MC. 2022. A Study on the Change of Visitor's Percep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The Field Agricultural Area of the Volcanic Island in Ulleung.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1(3): 173-183.
- Gang SG. 2013. The actual conditins and the problem of rural touris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0(384): 36-42.
- Im TB. 1996. Articles : A Study on the Negative Effects of Agricultural Subsidy Policies; From the Sociological Interaction Perspectives.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5(2): 136-160.
- Jeong MC, Mun HY, Kim MH. 2014.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the Rural Intangible Heritage According to GIAH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History* 13(1): 51-84.
- Kim DC, Choi WY. 2014. IPA Study of Landscape Petentiality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s – A Focus on Cheongsando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2(4): 76-88.
- Kim JH, Jung MC. 2019.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Program for Dynamic Conserva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NATR)* 15(4): 255-274.
- Kim JH, Jung MC. 2020. Development of Resident Participation-type Agricultural Heritage Monitoring Indicators.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NATR)*, 16(4): 23-47.
- KRAHS. 202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Agricultural Heritage Monitoring System for Residents' Particip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Kwon BK, Jeong MC. 2018. The Implementation of Korea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Policy and Future Tasks (4): 105-129.
- Lee HK, Shin YS. 2019. A Comparative Analysis on Economic Evaluation Methods of the Public Values of Agricultural and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Agriculture Conference Paper* 2019(0): 263-264.
- Lee JM. 2011. Derivation of HRD Policy Direction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y Using AHP Methodology.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6): 350-359.
- Lee SH, Jeong SM. 2019. Effects of “Walking City, Seoul” Polic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es. The Seoul Institute : 1-83.
- Lim JW, Son YH. 2021. A Study on the Landscape

- Characteristics of Jeju Woljeong-ri Batdam as an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7(3): 57-68. 10.7851/ksrp.2021.27.3.057
- Lim KK. 2021. A Study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Sustainable Agri-Tourism through Agricultural Haritage – Focused on Byeongyeong-myeon, Gangjin-gun –. *Jorunal of Photo Geography (Sajin Chiri)* 31(1): 75-89.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21.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Japanese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World Heritage of Irrigation Facilities.
- Park KS, Lim KU. 2020.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Agricultural Tourism through Ecomuseum. *Jorunal of Photo Geography (Sajin Chiri)* 30(2): 148-159.
- Park MJ, Jeon JB, Son HG, Shin MJ, Park RU. 2019. A Study on Public Effect of Rural Tourism Development Project on the Rural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61(5): 57-68.
- Rho WJ. 1991. *Public Poilcy Analysis*. Seoul: Bubmunsa.
- Saaty T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New York.
- Saaty TL. 2003. *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New York.
- Sha DC. 2019. Reflections of the Public Interest Values in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al Food. *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20(3): 423-447.
- UNU-IAS·Bioversity International·IGES·UNDP. 2014. *Toolkit for the Indicators of Resilience in Socio- ecological Production Landscapes and Seascales (SEPLS)*. 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of Advanced Study of Sustainability.
- Yoon JS. 2013. Determining the Priority of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Policy in Gyeongsangnam-do through AHP Analysi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5): 517-526.
- Yoon SD, Choi YJ, Choi JS, Lee SM. 2017. 2016 Rural Index.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https://www.ruritage.eu>